논 문
CODE 20101

***현대교회건축에 나타나는 도상학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Iconography in Modern Church Architecture

조경수* / Cho, Kyung-Soo
오건수** / Oh, Kun-Soo

Abstract

The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the ideologies and principles applied to the formative expression of church architecture which is contained both the God and human.

Iconography as the relation between described target and the meaning as meaning analysis especially emphasized since the religious reason in religious art. Iconography is the area of discussing rules and habits and involved in the pieces of transition from the piece of experience obtained by sensing to the one of the ethical structure.

N. L. Prak who apply meaning theory of E. Panofsky who distinguish between iconography and iconology clear relation of mental foundation which characteristics of shape of art and its concretion in architecture categorized the shape of meaning in three steps. Among them, conscious symbol and unconscious symbol correspond to iconography and iconology of Panofsky respectively. The symbol is mainly showed in religious architecture and is not related to simple practical architecture. Such symbol system can be important discussion objects in modern church architecture and necessary expressional system for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키워드 : 교회건축, 도상학, 상징, 표현특성
Keywords : Church Architecture, Iconography, Symbol,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간의 생활을 대변하는 건축 중에서 교회 건축은 신의 모습-신을 향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인간의 행태적인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역사 이래 각 시대별로 독창적이고 근본적인 공간 개념과 형태를 창조하고 신앙생활을 표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양 건축사를 대변했던 교회 건축은 근대이후 더 이상 양식사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지 못하였으며 어떠한 표현적 특성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이후의 소멸된 교회 건축사를 정립하고자하는 대 전제를 가지고 현대건축에서 파악될 수 있는 표현적 특성 중에서 도상학적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표현 방법을정의하고 현대 교회 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특성중 하나로 규정하여 현시점에서 예술과 건축양식으로 이해되며 조화 될 수 있는 교회건축을 계획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근대건축운동 이후로부터 현시점까지를 시대적 범위로 하며, 내용적 범위로는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현대교회건축의 표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여 신교와 구교의 구분적인 분류는 하지 않았고 표현특성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근대건축운동을 포함하여 건축가 개인 또는 집단화된 사상적 개념을 적용하여 표현 개념의 차원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도상학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대교회건축에 적용되는 체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체계가 현대교회건축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작품을 통하여 설명하여 그 표현특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2. 도상학적 표현체계와 상징적 의미

서양 건축사를 통해서 교회는 중요한 건축 작업(Leading

* 정회원,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본 논문은 2003년도 남서울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building task)[1]이었기에 교회에서, 인간의 우주에 대한 이해와 세계내의 그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졌고, 시각화되어졌다. 또, 교회에서는 일반적이고 무한한 어떤 것의 새로운 해석이 정립되어졌으며 지속적으로 교회는 인간에게 실존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다. 그리하여 교회는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그 어휘(language)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어휘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체험을 구체화한다.

초상 또는 종교예술의 도상(icon)이 지니는 의미내용을 연구하는 도상학(Iconography)은 예술학의 측면에서는 조형적 표현에서 일정한 형식에 내포된 특유한 의미와 내용을 규명하고 형식과 의미의 약속관계를 설명하는 분야를 말한다.[2]

즉, 도상학이란 묘사되는 대상과 그 의미와의 관계, 환언하면 정보적 내용을 다룬 것으로 종교예술 등에서는 신앙상의 이유로 해서 특히 중시되었다.[3] 도상학은 규칙과 습관을 논하는 학문이며 감각으로 얻어지는 모든 경험의 조각들을 본능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표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개입된다.

즉 규칙과 습관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을 재현한 상징을 자신의 논리와 연관시킬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문화나 시대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혹은 관례화 된 공식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시각적 상징을 해석해낼 수 있다.[4]

도상학과 도상해석학(Iconology)[5]의 구분을 통해 미술작품의 형태적 특성과 이것을 구체화하려는 정신적 기반의 관련을 밝힌 파놉스키E. Panofsky는 도상학을 개개의 상 즉, 이미지가 모여 표현하는 전체의 이야기나 우의(allegory)를 해석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이를 이차적 혹은 관습적 주제[6]라고 명명하였듯이 그 재현대상에 대한 경험을 전제하고 있다.

<표 1> E. Panofsky의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해석대상	해석행위	해석도구	보완책(전통의 역사)
I. 일차적인 또는 자연스러운 주제 예술적 모티브들이 이루는 세계	· 전 도상학적 단계의 작품서술(보통 형태분석으로 불린다.)	· 일상경험(대상이나 사건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	· 양식사(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 가운데 대상이나 사건들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 가의 과정을 투시)
II. 이차적인 또는 관습적인 주제나 그림, 일화, 알레고리가 이루는 세계	· 도상학적 분석	· 문헌기록에 대한 지식(특정테마나 관념을 잘 익힐 것)	· 유형사(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 가운데 특정한 주제Thema나 구성기획Concetto들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들을 매개로 해서 표현되는가의 과정을 투시)
III. 본래적 의미나 의미내용. 상징가치로 이루어지는 세계	· 도상해석학적 해석	· 종합직관(인간정신의 본질적 경향들을 잘 파악할 것) · 해석자 개인의 심리나 세계관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 문화적 징후의 역사 또는 보편적 의미의 상징(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 가운데 인간정신의 본질적 경향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구성기획들을 매개로 표현되는가의 과정을 투시)

파놉스키의 의미론을 건축에 응용한 프라크(N. L. Prak)는 건축에 있어서 의미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건축의 도상학적 의미를 강조하였는데, 이 중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인 의식적 상징과 잠재적 상징은 각각 파놉스키의 도상학과 도상해석학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징은 주로 종교건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단순한 실용적 건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돔은 천공을 표현하고, 돔 구조의 건물은 소우주를 나타내며, 르네상스 시대의 장식은 고대 로마의 위대함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이고, 고딕 모방 양식은 중세를 표현할 의도로서 모두 의식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외계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 즉 세계관은 무의식적으로 예술작품에 표현되는데 이러한 의미는 통시적으로 비교, 추론되기 때문에 잠재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작가가 작품에 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식적 상징이며, 잠재적 상징은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것을 정보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관조자의 임의에 맡기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적 상징은 원래 미신이나 주물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에는 자연과학의 발달과 합리주의적인 사상의 보급으로 인해 점차로 소멸되어갔는데[7], 따라서 이러한 상징체계의 회복이 현대 교회건축에서 주요한 논점이 될 수 있으며, 그 표현특성을 도출하는데 있어서의 필연적인 표현체계라 할 수 있다.

후기 르네상스 이후 새로운 도상학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설계에 적용한 슈바르쯔는 풍성한 시적 이미지와 상징적인 기호로 6개의 전형적인 교회형태를 제시하면서 인간을 교회의 구성

1)Sedlmayer, H., Verlust der Mitte, Saltzburg, 1948, Norberg-Schulz, C., The Concept of Dwelling, 거주의 개념, 이재훈 역, 태림문화사, 1991, p.77

2)Frankl, Paul, Principles of Architectural History, 건축형태의 원리, 김광현 역, 기문당, 1989, p.7

3)신약성경에서 보면 예수의 가르침은 거의 비유에 대한 의미의 해석으로 이해된다.

4)Wittkower, Rudolf, Interpretation of Visual Symbols in the Arts, Martin Secker & Warburg Ltd., London, 1955., Kaemmerling, Ekkehard, Ikonographie und Ikonogie: Theorien, Entwicklung, Probleme,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이론-전개-문제점, 이한순 외 4인 역, 사계절, 1997, pp.164-169 재인용

5)이는 도상학보다 더 적극적으로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종합하는 것으로서 작품성립의 기반이 되는 민족·시대·계급·종교·철학 등의 특성을 작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최종적으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의 기본적인 경향, 즉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문화적 징후(cultural symptoms)'나 '상징(symbols)'으로 부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은 작가의 표현의도와는 무관하게 작품에 표현되는 것이다. 井上充夫, 建築美論, 임영배·신태양 공역, 도서출판 국제, 1994, pp.302-303

6)Ibid., p.302

7)Ibid., p.304

적인 건물매체로 생각하였다. 그는 중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육신을 모델로 하여 교회를 건설하였을 때 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특별한 관념을 가졌었다는 도상학적인 사고를 피력한다. 슈바르쯔의 도상학은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되어지며, 이 의미는 그리스도 생애의 여러 단계와 관련을 맺는 것이었다.

3. 도상학적 표현특성

건축가가 교회건축의 디자인 단계에서 형태생성 동인이 되는 준거 틀, 즉 신성과 인성 양자를 공통인자로 하여 '보는 방식'은 단지 시각적인 감각에서가 아니라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태도[8]인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건축가가 중시하는 사고를 상징적 의미와 자율적 형식, 그리고 표현의 진실성이라는 변별적 의미로 수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성 중 하나인 도상학적 표현은 과거의 혼재적 기억에 의한 집단 무의식적 원형이미지와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기반으로한 감성적 건축 즉, 연상건축의 물적 대상의 우의적 형상화로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1. 집단무의식적 원형이미지

융(C. G. Jung)의 집단무의식[9]은 인간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과거의 혼재적 기억의 집합체이며 이러한 집단무의식의 내용을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융의 이론에서 정립된 이러한 원형의 개념은 종교학에서 나타난 원형론의 개념을 개진하게 하였는데, 결국 교회건축에서 원형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 지리적 조건의 차이, 인종의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 선험적 인간의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원형 그 자체가 아닌 원형적 이미지이며 원형적 이미지와 관련성을 갖는 원형적 형태이다.

예술작품의 형태 관찰에서 순수한 형태를 관찰 한다기보다는 형태가 지니는 의미를 작품 서술의 대상으로 볼 때, 조형예술의 의미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대상을 직접 보고 파악하는 일 외에 작품의 내용을 표현하는 보편적 원칙, 즉 원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지식은 어떤 과제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 얻어지는데, 바로 양식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며 이를 통한 주제의미를 발견하는 데에는 유형학적 지식이 보완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서 유형이란 용어는 특정한 사실의미가 특정한 주제의미와 어울려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의미가 전통적인 주제의미를 담는 기표로서의 역할을 한다.[10]

(1) 도상학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유사형성

이러한 도상학적 표현이 유형으로 보완될 때 유사형성 Analogie -Bildung현상이 나타나는데 유사형성은 전통적인 모티브가 새로운 맥락 안에서 원래의 의미가 전화되거나 부활되어 재사용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그 모티브를 사용할 때 원래의 의미에 부합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11] 따라서 도상학적 표현 과정에서 보이는 선행된 유형과의 유사성은 오랜 역사적 시기를 지나면서 이루어지며 공간적-시간적 문맥이 변함에 따라 기존 유형과 새로운 문맥을 조화롭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창의성도 요구된다. 이 경우에 유형의 선택은 당대의 신념과 과거에 정식화된 약호와 가치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가치판단을 포함하게 된다.

즉 신학에 대한 작가의 개성적인 해석이나 건축적인 표현보다는 기독교의 영구불변한 규범의 양식에 침잠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며, 양식의 피상적인 절충이 아닌 유형과 형상의 실존적 특성을 파악한 표현이어야 한다. 즉 페레(A. Ferret)의 성 조셉 교회(1959)에서 나타나듯이 르네상스 공간에 고딕 첨탑을 부가시킨 것은 전형적 요소의 관습적 결합이나 변화가 아닌 땅과 하늘 사이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 형식을 표현한 것이며, 이와 같이 유형은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실존적 의미를 부여받을 때 그 형상적 발현으로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교회건축에 있어서 도상학적 표현을 중시한 슈바르쯔는 전형적인 6개의 교회 형태<그림 1~6>를 기하학적으로 환원하여 성서적 의미를 부여 하였다.

첫 번째 도상은 원으로서 그리스도가 공생을 시작하기 전의 '신성한 영성(Sacred Inwardness)'을 나타내며, 두 번째 도상은 원이 부분적으로 개방된 '열린 고리(open ring)'로서 그리스도가 공생활을 시작함, 즉 '신성한 출발(Sacred Parting)'을 상징한다.[12] 세 번째 도상은 그리스도의 세례, 즉 '빛의 성작 (The Chalice of Light)'을 상징하는 것으로 돔의 일부를 잘라 개방시키거나 하기아 소피아, 바로크 교회처럼 돔이나 큐폴라를 얹어 빛을 내부에 받아들인다. 네 번째 도상은 '신성한 여행(Sacred Journey)'으로서 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움직임,

8)조경수,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표현특성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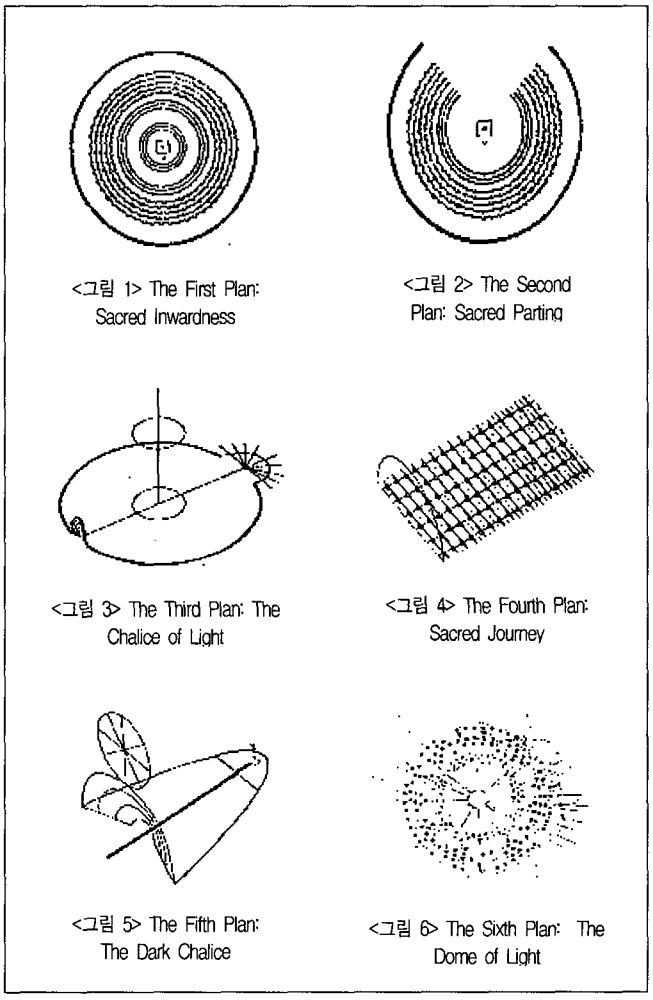
9)신 정신분석학파의 하나인 융C. G. Jung의 분석심리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으로 분류되며 집단무의식은 사람의 유전적인 발전과정에서 계승되어 온 정신적인 잔재로서 대대로 반복되어온 경험의 결과가 축적된 것이다. 서봉정 외, 심리학 개론, 박영사, 1984, p.28

10)Panofsky, Erwin, Problem der Beschreibung und Inhaltsdeutung von Werken der bildenden Kunst, 1964, Kaemmerling, Ekkehard, pp. 113-123 재인용

11)Ibid., p.125

12)"이것은 닫힌 형태의 일부분이 터져 열리는 순간의 상태이다. 사람들은 개방으로 나아가려는 지점에 있다. 그들은 첫발을 내딛길 바라지만 보호와 길 사이의 문지방 위에서 잠시 머문다. 그 보호의 형태는 여전하지만 깨어져 열리고 곧 사라지기 시작한다." Schwarz, Rudolf, The Church Lncarnate, Henry Regnery and Co. USA, 1958, pp.70-71

행진, 순례 공동체에 관련된 것인데[13], 이것의 형태는 바실리카식 교회가 전형이고, 그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Church of Corpus Christi, 1930)가 해당된다. 다섯 번째 도상은 '암흑의 성작(The Dark Chalice)'으로서 안식처에 도달한 순례백성들은 포물선의 열린 끝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팔에 도달하며, 그의 성 미카엘 성당(1954)과 마리아 퀘니긴 성당(1959)이 해당된다. 여섯 번째 도상은 '빛의 돔(The Dome of Light)'으로서,[14] 그의 성 보니파스 성당(1964)이 해당되며, 슈바르쯔는 여기서 부활의 기쁨과 영혼이 신과 결합하는 축복의 미래상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림 1> The First Plan: Sacred Inwardness

<그림 2> The Second Plan: Sacred Parting

<그림 3> The Third Plan: The Chalice of Light

<그림 4> The Fourth Plan: Sacred Jour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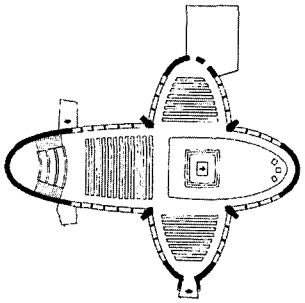
<그림 5> The Fifth Plan: The Dark Chalice

<그림 6> The Sixth Plan: The Dome of Light

<그림 1 - 6> 슈바르쯔의 전형적인 6개의 교회 형태

이와 같이 현대 교회건축의 도상학적 표현특성 중 원형이미지의 표현은 전통적 형태의 단순화로서 구현이 되지만, 그 형태에 부여되는 상징적 의미는 슈바르쯔의 도상해석에서 보이는 자의적인 것[15]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편적 의미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미를 부정하는 기독교에서 신의 미를 체험하기 위한 매개수단으로써 물질적인 미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종교도상과 교회건축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교회건축에 상징적인 의미가 부가되었고 교회당의 평면이 인체 혹은 그 원형으로서의 신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는 신인동형론적 해석을 생성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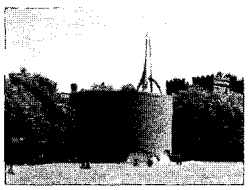


<그림 7> R. Schwarz, Maria Königin 교회, Saarbrücken,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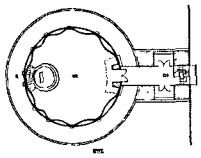
(2) 도상학에서 원형이 가지는 건축형태의 의미

유심적 교회건축의 원형이었던 원은 그 형태가 시작도 마침도 없으며 양자의 구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분도 한결같으며, 모든 부분이 전체에 관여하고 또한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의 유일성, 무한의 본질, 균일성을 정의하기에 적합하다.

팔라디오(Palladio)와 알베르티(Alberti)는 원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규칙적인 형태이며 완전하고 신성한 형태이기 때문에 교회를 원형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으며, 슈바르쯔의 해석에 의하면 원은 신성한 영성(Sacred Inwardness), 그리고 인간이 그리스도-제대 주위로 고유하고 친밀한 유대 속에 모이는 것을 암시한다. 대지 내의 중심에서 구심적인 형태가 부여된 사리넨(E. Saarinen)의 M.I.T Chapel(1955)이 해당된다.



<그림 8> E. Saarinen, MIT Chapel, Massachusetts,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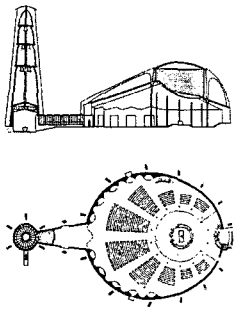
<그림 9> MIT Chapel 평면도

13)"이 땅에서 거의 휴식 없이 살아가는 인간운명의 공통된 길, 그러나 그들은 위대하고 용감하게 산다. 그들은 그들의 전 존재를 목표를 위해 위험에 내맡긴다." Ibid., pp.125-126

14)"절대적인 빛의 돔이다. 건물은 빛으로 구성된다. 모든 면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며 모든 물체가 빛을 발한다. 빛이 빛에 녹아들며, 빛이 빛에 응답한다.…어디에나 하늘과 땅이 있다. 하나가 다른 하나로 녹아들어간다." Schwarz Rudolf, The Church Ln carnate., op.cit., pp.180-181

15)'신성한 건축의 위대한 모델'로 불렀던 그리스도의 생애에 따른 형태를 기초로 한 그만의 독특한 해석에서 도상학적 개념을 읽을 때 그 성격상 그리스도 양자론(Adoptionism)이나 그리스도 가현론(Docetism)과 같은 일부 그리스도의 이단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도상학이 그리스도적인 교회모델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통 그리스도론에 입각한 신학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형태가 신성(Divinity)의 성격에 유사해야 한다는 비트루비우스식의 이상과 교회건축은 건축언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슈바르쯔의 논쟁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신, 유럽 현대 교회건축을 찾아서-제1부. 루돌프 슈바르쯔와 성당건축, 건축과 환경 9109, p.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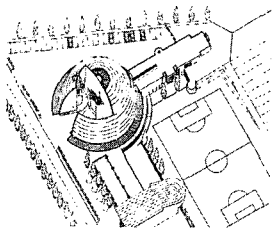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체 양자가 하나의 개념으로 종합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교회건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체적 행위라는 내재적 일체성을 표현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음주의적인 종교의식은 하나의 중심을 갖는 원과 같은 것이 아니라 타원과 같이 두 개의 중심,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도와 신자들의 중심에 제단을 세우고자 하는 사상을 달성한다. 이는 중심과 축의 결합이라는 기독교 건축의 지속적인 주제라 할 수 있으며 고트프리드 뵘의 성 알버트 교회(Saarbrücken, 1955)가 이와 같은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 10> G. Böhm, St. Albert 교회, Saarbrücken, 1955

돔(Dome)은 천공을 표현하고 돔 구조의 건물은 소우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돔이 현대건축에 있어서 더 이상 천국의 종교적 이미지를 특별히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공허부로서 현실과 천공 간의 자연스런 친근성을 영구히 갖게 되며 그 주요한 표현적 내용의 어느 정도를 공유하는 것이다.[16] 또한 바실리카나 로툰다의 형상적 질은 페디먼트(pediment)나 돔(dome)과 같은 다른 강력한 이미지의 부가로서 향상되어질 수 있다고 부언할 수 있다. 페디먼트는 수평과 수직 사이의 긴장감을 종합적으로 축약하고 있다. 한편 돔은 수평에 대한 참고점(reference)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통합된 세계의 이미지를 구성한다. 페디먼트와 돔은 쉽게 상상되는 형태와 심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수세기 동안 인간의 거주지에서 두드러지는 형상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들은 그 기본적 의미를 잃지 않고 수많은 변형을 이루어 왔다. 돔은 내 · 외부의 이중 기능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19세기 말까지 그것은 교회건축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의 지표로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17]

반원형의 평면을 가진 1/4의 원구형태가 되는데 판테온과 같은 완전한 소우주의 공간을 이루어 보려는 작가의 의지가 엿보이는 다힌덴(Justus Dahinden)의 Church of St. Maximilian Kolbe (Varese, Italy, 1996)는 신자석을 전체배치에 어울리도록 곡선으로 제작하여 제단으로 향한 구심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르네상스의 이상적 개념이었던 큐폴라(Cupola)의 새로운 해석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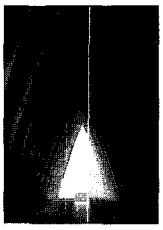
<그림 11> J. Dahinden, Church of St. Maximilian Kolbe, Varese, 1996

(3) 도상학에서 고딕이 가지는 건축형태의 의미

고딕의 이미지는 도상학적인 표현특성의 전개를 만드는 유용한 동인이 된다. 이는 때때로 종교와는 무관한 건축에서도 종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원리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고딕이란 기능에 대한 표현의 승리, 분할된 예술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예술의 우위, 현세의 상인근성을 초월한 새로운 공동 생활체로의 확신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조형예술의 분야에서는 이 고딕 정신의 강림이 건축보다도 적극적이어서 고딕교회는 들로네, 몬드리안, 쿠프카와 같은 예술가에게 도상학적인 전개를 만드는 유용한 모티브가 되었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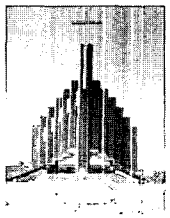
결국 첨탑아치형태 또는 기둥형으로 분절된 벽면이 가지는 수직적 형태 요소가 노출된 기근 모양 등 고딕화된 이미지는 교회건축에 무의식적으로 종교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으로서, M. Sana -ksenaho의 Truku Chapel(1995-)과 김충진의 청주서문교회, 최영진의 역삼동 성당은 이러한 고딕 양식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개념의 교회건축을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국내의 보수적인 기독교 풍토에서는 직설적인 고전양식을 의미의 변환 없이 무절제하게 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2> M. Sanaksenaho, TrukuChapel, 1995-

<그림 13> 최영진, 역삼동성당, 서울



<그림 14> 김충진, 서문 교회, 청주

3.2. 물적 대상의 우의적 형상화

성서적으로 의미를 갖는 물적 형태를 우의적으로 해석하여 형상화하는 것은 건축기호가 지닌 상징성을 활용함으로써 집합적인 의미의 내용을 교회건축에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건축의 형태가 지닌 조각적인 효과와 표현형식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종교적 체험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으며 이러한 표현 특성은 인간의 감성과 심리적 반응을 고려한 감성적인 건축적 이미지의 표현, 즉 연상의 건축을 지향하는 도상학적 특질을 나타낸다.

16)Arnheim, Rudolf,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건축의 역학적 형태, 손승광 역, 세진사, 1994, p.250

17)Norberg-Schulz, C., The Concept of Dwelling, 거주의 개념, 이재훈 역, 태림문화사, 1991, pp.90-91

18)Pehnt, Wolfgang, Expressionist Architecture, Thanes and Hudson, London, 1973,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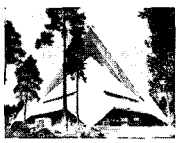
(1) 건축에서의 형태적 상징성

이러한 표현특성을 보이는 교회건축에는 형이상학적인 이념들이 존재하며, 각 건물들은 의미 있는 상징적 대상이나 이미지가 된다. 여기서 상징성의 이미지는 원초적인 감정과 연상에 의해서 경험되며, 이것은 규범에 의한 조화보다는 다양한 문화의 원천에서 참조해 온 이질적 요소들의 상징적 통합을 통해서 건물에 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19]

즉 도상학적 표현에 있어서 물적대상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할 때 나타나는 형태와 의미의 통합은 형태의 표현이 기능적 목적으로 전술된다는 점, 이러한 디자인 의도가 신도들에게 일련의 연상작용을 수반케 하는 "이야기하는 건축(Architecture Parlante)"의 속성, 즉 상징적 개념이라는 정서에 영향을 주는 건축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교회건축에 있어서 달걀형의 평면과 형태는 모든 형태 중에 가장 완벽한 기하도형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탄생하게 하는 신을 탐구하는 곳임을 상징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고, 르 꼬르뷔지에가 롱샹성당(1955)을 "노아의 방주 이미지'라 한 것은 교회건축의 형태적 표현을 성서적 의미의 은유적 해석에 기인한 메타포적 발상임을 시사한다. 즉 그의 건축적 형태는 그 원천으로서 다양한 차원들, 즉 과거와 현재의 복합적인 이미지들을 통합시킴으로써 생성되어진 것인데, 노아의 방주와 성 베드로의 배를 상기할 때는 구원의 의미, 텐트의 형상 등을 연상할 때는 순례교회임을 표현하며, 교회건축 공간의 언어를 원시적인 표현으로 복귀시키면서 카타콤의 이미지로서도 나타내었다.

<표 2> 도상학적 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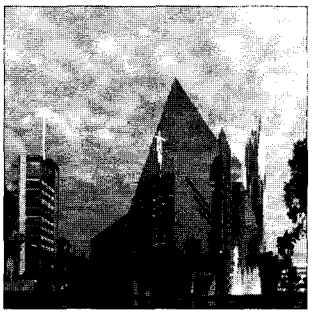
	도상학적 표현 사례		
	풍토적 건축	전통적 건축	현대적 건축
개념	· 장소적 특성을 교감적인 공간으로 표현 · 단순한 평면 아래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내/외부의 조화로움을 생성 · 기하하학적인 기본형태를 사용 - 잎사귀형, 물방울 형, 목 조 범선의 이미지 표현	· 전통적인 인디언 가죽천막으로부터 유추된 형태를 다룸 · 재료의 본질을 추구 · 인상적 공간과 자연경배를 위한 순례적인 대지로 받아들여지도록 유기적으로 의도	· 역동적인 형태미로 표현 · 역동적인 프리즘 형의 현대적 텐트를 형상화함
사례	▷Peter A . Zumthor : St. Benedict Chapel (Swiss, 1989)	▷Frank Lloyd Wright : Beth Shalom Synagogue (1959)	▷Aarno Ruusuvuori : Hyvinkaa Church (1961) 

풍토적 건축이 가지는 장소적 특성을 교감적인 공간으로 표현한 줌터(Peter A. Zumthor)의 St. Benedict Chapel(Swiss, 1989)의 평면은 단순하지만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내외부의 조화로움을 생성하며, 텐트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역동적인 프리즘형의 현대적 텐트를 형상화한 Aarno Ruusuvuori의 Hyvinkaa 교회(1961)와 전통적인 인디언 가죽천막(wigwam)으로부터 유추된 형태를 다룸에 있어서 재료의 본질을 추구한 라이트의 Beth Shalom Synagogue(1959)는 인상적인 공간과 함께 자연경배를 위한 순례적인 대지로 받아들여지도록 유기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2) 교회건축에서의 수정체의 도상학적 해석

수정체의 특징은 그 내재된 핵이 외부 형태의 결정면에 나타나 있으며 그 핵은 형태 자체에 의해 성립하고, 또한 수정체 자체는 어떠한 것도 숨김이 없으며 그 신비성은 투명성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면은 외계의 빛을 반사한다.

이러한 수정체에 내재된 미적 특성은 생명 부정의 무기질로서의 결정체 속에서 나타나는 추상적 형태이며 기하학적인 규칙성은 추상적인 순수함과 간결함으로 파악된다. 이는 모든 우연성으로부터의 해방이 통합되어 있었던 것이며, 결국 다면의 결정체는 우주의 무한한 결정체이자 신비한 우주의 치밀함과 기하학적인 완전성을 상징한다. 특히 이러한 형태가 지니는 순수함, 명확함, 투명성, 구원성 등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교회 건축은 '우주의 모사'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하학 형태의 개념은 신비주의적 표현체계의 추상기하학 형상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수법 및 의도가 다른 사고체계를 바탕으로 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정체의 개념은 존슨의 가든 그로브 교회(1990)에서 현대적으로 구현된다.



<그림 15> P. Johnson, 가든 그로브 교회, California, 1980

(3) 교회건축의 토착성

건축의 창작상 중요한 것은 지역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건축적 도상을 이해하고 기존환경의 시각적 맥락에 합치되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라 할 때[20], 교회건축의 토착성은 친숙한 도상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정립된다.

이러한 표현 특성의 예로는, 물고기를 은유적으로 해석한 피에틸레(Reima Pietilä)의 Kaleva Church(1966), 지역 전통의 거석 사원을 모티브로 한 잉글랜드(Richard England)의 St. Joseph 교회(1974), 캄파라의 구왕릉의 구조와 아프리카인들이 살았던 움막집의 형태와 연관이 있는 원형천정분단의 형태를 통해 순교자삼성을 상징한 다힌덴의 Mityana Chthedral(Uga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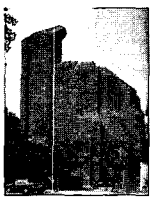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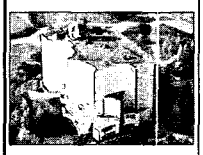
19)Pehnt, Wolfgang, Expressionist Architecture, op. cit., p.19

20)Brolin, Brent, C., The Failure of Modern Architecture, 근대건축의 실패, 심영섭 역, 기문당, 1986, pp.108-121

1972)등이 있다.

국내의 적용 사례로는 임금주의 산성교회에서의 노아의 방주의 형상화와 김수근의 경동교회의 기도하는 손, 차운기의 여수 재건교회에서의 안식처로서의 자궁을 형상화 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3> 교회 건축의 토착성

	교회 건축의 토착성		
	국내		
개념	· 임금주의 산성교회: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하여 영적구원의 의미를 표현함.	· 수근의 경동교회: 기도하는 인간의 손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의 이미지를 나타냄(1981)	· 차운기의 여수 재건교회: 태초의 생명의 신비와 속세로부터 격리된 안식처를 의미하기 위하여 자궁을 비기하학적 형태로 형상화
사례			
	국외		
	핀란드	잉글랜드	아프리카
개념	· 물고기 형상의 평면을 통해 핀란드 서사시 Kalevala에 등장하는 즉, 핀란드 국민을 먹여주고 생존시켜주는 물고기를 은유적으로 해석한 피에틸레(ReimaPietilä)의 Kaleva Church(1966)	· 지역 전통의 거석 사원을 모티브로 한 잉글랜드(Richard England)의 St. Joseph 교회(1974)	· 캄파라의 구왕릉의 구조와 아프리카인들이 살았던 움막집의 형태와 연관이 있는 원형천정분단의 형태를 통해 순교자삼성을 상징한 다힌덴의 Mityana Cathedral (Uganda, 1972)
사례			

4. 결론

현대 교회 건축에서 나타나는 도상학적 표현특성을 두 가지 체계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집단무의식적 원형 이미지와 물적 대상의 우의적 형상화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표현특성과 맞추어 <표 4>를 통해 정리해 봄으로써 도상학적 표현특성이 어떠한 의미 체계 속에서 건축형태로 표현되고 있는지, 어떤 사조와 같이 형성되는지에 대해 분류해 보았다.

사조별 분류에서 역사주의적 표현형식인 '고전적 형태유형의 절충'과 '역사적 기념비성 표현'은 이러한 도상학적 유형학에 바탕을 둔 집단무의식적 원형이미지를 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며, 표현주의적 형식의 '수직적 초월성의 표현'은 대표적으로 고딕적 이미지를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합리주의적 표현형식 중 '역사적 형태의 환원성 표현'은 교회건축의 영속적 가치를 원형의 형태로 단순화함으로써 성취된다고 인식할 때 이 역시 도상학적 표현특성으로서 집단무의식적 원형이미지를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 현대 교회건축의 표현특성과 사조별 분류의 연관관계 분석

		도상학적 표현특성	
		집단무의식적 원형 이미지	물적대상의 우의적 형상화
역사주의	역사적 기념비성 표현	▷A. Ferret · St. Joseph 교회 (1959) ▷B. Spence · Coventry 성당 (1962)	
표현주의	기하학적 결정체의 표현		▷G. Böhm · St. Gertrude 교회 (1965) · Neviges 순례교회 (1968) ▷A. Ruusuvuori · Hyvinkaa 교회 (1961) ▷P. Johnson · Garden Grove 교회 (1990)
	수직적 초월성 표현	▷G. Böhm · St. Albert 교회 (1955) ▷P. L. Spadolini · 성모 마리아 성당 (1988) ▷J. Dahinden · St. Francis 교회 (1963) · St. Mary's 교회 (1965)	▷F. Gibberd · Liverpool 성당 (1967) ▷김수근 · 경동교회(1980)
	조소적 역동성의 표현		▷Le Corbusier · Ronchamp 성당 (1955) ▷차운기 · 여수 재건교회 (1990)
지역주의	인지-행태적인 유기성 표현	▷T. Suomalainen · Temppeliaukio 교회 (1969)	▷P. A. Zumthor · St. Benedict Chapel (1989)
	전통적 형태의 직해	▷J. Dahinden · St. Maximilian Kolbe 성당 (1996)	▷F. L. Wright · Beth Shalom Synagogue (1959) ▷R. Pietilä · Kaleva Church (1966) ▷M. Poulsson · Gravberget 교회 (1956) ▷P. Celsing · Nacksta 교회 (1968) ▷R. England · St. Joseph 교회 (1974) ▷J. Dahinden · Mityana 성당 (1972) ▷R. Legorreta · Managua 성당 (1993)
합리주의	역사적 형태의 환원성 표현	▷R. Schwarz · Corpus Christi 성당 (1930) · St. Michael 성당 (1954) · Maria Königin 성당 (1959) ▷E. Saarinen · MIT Chapel (1955)	
	기하학적 단순성 표현	▷R. Schwarz · St. Bonifatius 성당 (1964)	

도상학적 표현은 예술작품의 형태 관찰에서 순수한 형태를 관찰하기 보다는 형태가 지니는 의미를 작품 서술의 대상으로

볼 때, 의미해석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묘사되는 대상과 그 의미와의 관계, 환언하면 정보적 내용, 즉 규칙과 습관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감각으로 얻어지는 모든 경험의 조각들을 본능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표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사고의 결과이다.

이러한 종교적 사고를 통한 시각적 상징체계의 정립은 현대교회건축에서 형태적 특성을 논하는 데에 주요한 관점이 될 수 있으며 좀 더 나아가 현대건축의 표현특성을 노출해 내는 데에도 하나의 요소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서봉정 외, 심리학 개론, 박영사, 1984
2. 손승광 譯, Arnheim, R.,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건축의 역학적 형태, 세진사, 1994
3. 이한순 외 4인 역,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이론-전개-문제점, 사계절, 1997
4. 井上充夫, 임영배 · 신태양 공역, 건축미론, 도서출판 국제, 1994
5. Arnheim, Rudolf, 손승광 역,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건축의 역학적 형태, 세진사, 1994
6. Brolin, Brent, C., 심영섭 역, The Failure of Modern Architecture, 근대건축의 실패, 기문당, 1986
7. Frankl, Paul, 김광현 역, Principles of Architectural History, 건축형태의 원리, 기문당, 1989
8. Norberg-Schulz, C., 이재훈 역, The Concept of Dwelling, 거주의 개념, 태림문화사, 1991
9. Pehnt, Wolfgang, Expressionist Architecture, Thanes and Hudson, London, 1973
10. Schwarz, Rudolf, The Church Lncarnate, Henry Regnery and Co. USA, 1958
11. 조경수,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표현특성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12. 김정신, 유럽 현대 교회건축을 찾아서-제1부, 루돌프 슈바르쯔와 성당건축, 건축과 환경 9109

<접수 : 2006. 10. 31>